

‘국토의 막내, 그 이름 독도’

창원경원중, 시낭송콘서트

경남 창원 경원중학교(교장 정순공)는 11월 23일 오후 창원교동방송공개관에서 시낭송 콘서트 ‘국토의 막내, 그 이름 독도’를 개최했다.

경원중학교와 시다락방송예술원의 공동 주최로 경원중학교 학생 50여명과 시다락방송예술원 회원 9명이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객석에는 추운 날씨에도 경원중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박수와 응원으로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하였다.

이국시의 ‘꿈아’, 이상희의 ‘백악기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고은의 ‘독도’ 등 15여편의 시를 연극과 낭송, 합창, 춤으로 표현하여 감동과 여운을 진하게 남긴 무대를 선보였다.

경원중학교 정순공 교장은 “일제강점기, 어둠의 통탄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이점표 삼아 섬세한 감성으로 조국의 해방을 노래한 시인들이 기억되고, 나라의 소중함과 독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낭송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남을 통해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시를 통해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 김호기기자 khh@

창원교육지원청, 수업연구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 나눔의 날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은 28일 사회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희망교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배움중심수업의 나눔과 체험을 통한 수업성찰과 성장을 위해 ‘2016. 수업연구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다.

‘수업 나눔의 날’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죽림초등학교 나미경 수석교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배움 중심의 수업 성찰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2부 배움중심수업 콘서트에서는 수업연구교사들이 11개 분임으로 나누어 1년 동안 계획하고 진행하여 온 수업연구에 대한 해설이 있는 수업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배움중심수업에 대한 성찰과 성장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수업관련 연구와 나눔 활동을 통해 학생참여중심의 소통과 공감이 있는 배움중심 수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배움중심수업을 위한 다양한 수업전

략 연구 및 공유로 행복한 학교 문화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수업 나눔의 날에 참석한 한 교사는 “수업연구교사의 노하우와 수업 관련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수업 전문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배움중심수업에 관한 사례 나눔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hh@



고운 심성 행복의 마음결 채우는 자람터

김천읍곡유치원, 제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

경북 김천 읍곡유치원(원장 박선희)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제 2회 전국 50대 교육과정 공모전에서 경북 50대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으로 1차 선발된 후, 지속적으로 행복 교육과정 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국 8851개 공·사립 유치원 가운데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됐다.

‘행복의 마음결을 채워가는 꼬마 자람터 이야기’를 유치원 비전으로 삼아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키워가는

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이, 함께 어우러져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그림책은 나의 친구’ 특색교육을 통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등 유아 중심 교육활동을 실시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명상, 산책, 자연사랑, 나라사랑 캠페인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고운 심성을 기르고 우리나라의 뿌리를 알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박선희 원장은 “유아들이 행복해지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유아들의 미래가 더욱 행복해지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한구 기자 chgks101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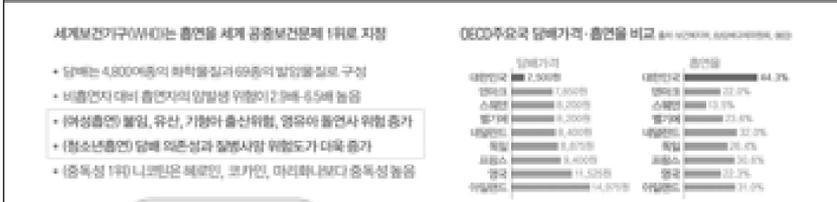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통재정을 상실할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알고 계산하세요?



한국

호주

유럽연합

우루과이

창원창신중,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 개최



경남 창원 창신중학교(교장 최상현)는 11월 18일 창신 체육관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을 개최했다.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을 개최했다. 창신중학교는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위해 ‘미래 통일리더’로 육성하고자 통일미래세대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통일청원시위의 회가 추후하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협의회가 주관하며 민족통일청상남도대회회가 후원했으며, 창신중학교 평생교육부장 강효일 선생님이 행사계획과 프로그램을 짜고 담당교사의 협조로 행사를 재미있고 신나게 진행했다.

3학년 이성재 학생은 이번 ‘도전! 역사·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북한과 남북통일에 대해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김호기기자 khh@

김해대동중, 예향의 도시 통영으로 떠난 문학기행



경남 김해대동중학교 김경희 교장과 학생 30명, 교사 2명은 ‘길 위의 문학 청소년들과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19일, 예향의 도시 통

영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문학 작품과 관련된 곳을 찾아가며 작가의 삶과 자연환경 등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정신에 공감하고 작품을 더 깊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전혁림 미술관, 박경리 기념관, 청미 문학관, 동래랑 벽화마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미 문학관에서는 아름다운 동영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여행의 느낌을 작은 엽서에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행에 참가했던 1학년 한 학생은 “예전엔 박경리 작가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문학기행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더 깊이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hh@

‘취업에 한 걸음 더!’

창원교육지원청, 장애학생 현장평가 실시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창원시장애인재활센터와 연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주에 걸쳐 관내 특수학교(급) 고등부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현장평가’는 실제의 작업시정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 능력과 적성 등의 직업적 제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직업 및 작업도 사

유, 작업동료와의 대인관계 등을 통해 자기 인식과 작업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제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이번에는 창원교육지원청 및 창원시장애인재활센터와 협력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원시장애인재활센터에서는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조연 등의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경남지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행정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장애학생의 취업에 있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던 고충을 3개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원도원고 김모군은 “관내 직종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처침 이번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졸업 전에 미리 실습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교육지원실에서는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이번에 진행된 연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더욱 활발하게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